

디자인 분야 질적 연구에서 근거이론 연구의 경향과 특성

질적 내용분석(QCA)을 통한 탐색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Grounded Theory Research in the Field of Design

An Exploration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CA)

주 저 자 : 박변갑 (Park, Byeon Gab)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강사
pzooya@nate.com

<https://doi.org/10.46248/kidrs.2025.3.331>

접수일 2025. 08. 20. / 심사완료일 2025. 08. 30. / 게재확정일 2025. 09. 08. / 게재일 2025. 09. 30.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17 grounded theory studies in the Korean design field published between 2016 and 2025. The analysis focused on research topics, data collection methods, procedures, outcomes, and the use of mixed methods. Results indicate that grounded theory was most often applied in user experience design, with interviews as the primary data source and Strauss and Corbin's systematic approach as the dominant procedure. Outcomes emphasized practical models over theoretical constructs, and many studies incorporated surveys or quantitative analysis alongside grounded theor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design contexts, grounded theory is valued more for its practical utility than for methodological rigor, serving as a bridge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The absence of constructivist approaches highlights the need for interpretive and post-qualitative directions in future work, as well as broader comparative studies that situate Korean design scholarship within an international context.

Keyword

Grounded Theory(근거이론),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Design(디자인 질적 연구방법론), Research Trends(연구 동향)

요약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수행된 근거이론 기반 연구 17편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주제, 자료수집 방법, 절차 유형과 세부 기법, 산출물의 유형, 그리고 혼합 방법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디자인 분야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며, 인터뷰 중심 자료 수집,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bin)이 제시한 체계적 접근방법 위주로 수행되며, 산출물은 순수 이론의 도출보다 실천적 모델 제시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전통적 근거이론 방법의 사용이 아닌 설문조사나 정량적 분석 방법과 혼합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근거이론이 디자인 맥락에서는 방법론적 완결성보다는 현장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과, 학문적 이론화보다는 실천적 개입과 지침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학문적 확장 차원에서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디자인 분야 근거이론 연구가 여전히 사회학적 전통의 절차적 관점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해석학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수행된 근거이론 연구의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그 활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그리고 근거이론이 디자인 연구에서 방법론적 엄밀성보다는 실천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밝혀 학문과 실천을 연결하는 전략적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국제 연구와 비교하여 한국 디자인 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조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구성주의적 접근이나 포스트 질적 전환을 탐색하여 근거이론이 단순한 절차적 도구를 넘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탐구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근거이론의 개념과 절차
- 2-2. 질적 내용분석(QCA)의 개념과 절차

3. 연구방법

- 3-1. 분석 대상 선정
- 3-2. 자료분석 절차

4. 연구 결과

- 4-1.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 4-2. 자료수집 방법별 분석 결과
- 4-3. 연구절차 유형 분석 결과
- 4-4. 산출물 유형 분석 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디자인 연구 분야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의 활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복잡한 디자인 현상과 사용자 경험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근거이론은 1967년 그레이저와 스트라우스(Glaser & Strauss)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 사회과학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으며¹⁾, 국내 디자인 연구에서도 서비스디자인, 공공디자인, UX 디자인, 디자인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절차의 핵심 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분야에서 수행되는 근거이론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의 표준 절차와는 다른 변형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방법론적 일관성 및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CA)은 기존 문헌과 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연구 방법의 적용 양상과 특징을 도출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다.²⁾ QCA는 연구 질문에 따라 귀납적·연역적 또는 혼합적 접근이 가능하며, 분석 과정에서 범주 체계의 명확화와 신뢰성 확보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이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디자인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근거이론 기반 질적 연구 논문을 수집하여,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해당 연구들의 적용 양상, 절차적 특성, 그리고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연구자들에게 근거이론의 효과적인 활용 방향과 표준화 가능성을 제시하며, 나아가 디자인 분야 질적 연구 방법론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QCA를 활용하여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수행된 근거이론 기반 질적 연구의 적용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 포함) 디자인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방법론에 ‘근거이론’이 명시되고 질적 접근임이 본문에서 확인 가능한 연구를 검색·선정하였다. 둘째, 선정 기준은 (1) 디자인을 주된 연구 분야로 설정한 논문, (2) 근거이론 절차 또는 용어(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이론적 포화 등)가 연구 설계·분석 과정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단순 인용이나 개념 소개에 그치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셋째, 분석 틀 개발 단계에서는 Schreier(2012)와 Mayring(2014)의 질적 내용분석 절차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근거이론 절차 적용 여부, 분석 도구, 연구 산출물 등의 코딩 범주를 설정하였다.³⁾ 범주 체계는 예비 코딩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확정하였다. 넷째, 자료 분석은 논문 초록, 연구방법, 결과·논의 부분을 중심으로 각 코딩 범주에 따라 귀납적·연역적 코딩을 병행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두 명의 연구자가 상호 검토를 통해 범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해석 단계에서는 범주별 빈도와 분포를 도출하고, 근거이론의 절차 적용 패턴, 변형 양상, 표준 절차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 분야에서 근거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1)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2018, p. 78.

2)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016. Vol.2, No.1, p. 127~155.

3) Schreier, M.,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Practice, Sage, 2012.; Mayring, P.,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oretical Foundation, Basic Procedures and Software Solutions, Beltz, 2014.

변용·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연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근거이론의 개념과 절차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개발된 질적 연구 방법으로, 1967년 Glaser와 Strauss의 저서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기존의 연역적 연구 설계와 달리, 근거이론은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범주를 생성하고, 범주 간 관계를 규명하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 이론(substantive theory)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 이러한 접근은 복잡한 인간 경험과 사회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특히 유용하며, 디자인 연구에서는 사용자 경험, 서비스 상호작용, 공공참여 프로세스 등 다층적 요소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근거이론의 절차는 연구자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나, 전형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의 순환적 반복, 코딩을 통한 범주화, 이론적 포화에 도달할 때까지의 자료 확장을 핵심으로 한다.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절차에 따르면, 먼저 개방 코딩(open coding) 단계에서 자료를 세분화하고 의미 단위를 식별하여 초기 범주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축 코딩(axial coding) 단계에서는 범주 간 인과관계, 맥락, 조건, 전략, 결과를 연결하여 분석 구조를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단계에서는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를 통합하여 이론적 모형을 완성한다.⁵⁾ 이 과정에서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과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는 필수적인 개념으로, 전자는 연구 과정에서 emerging concept를 심화·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선택하는 전략이며, 후자는 새로운 범주나 속성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 비교 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과 메모 작성(memoring)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된다.⁶⁾ 디자인 연구

맥락에서 근거이론을 적용할 경우, 프로젝트 현장의 특성과 창의적 과정의 변동성을 고려한 절차적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디자인에서는 개방 코딩 단계에서 참여 관찰 데이터와 시각 자료를 통합 분석하거나, 공공디자인에서는 축 코딩 단계에서 정책 문서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범주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변형은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넓히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의 일관성과 이론화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설계가 필요하다.

2-2. 질적 내용분석(QCA)의 개념과 절차

질적 내용분석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질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석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론으로, 자료의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분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의 대표적 분석 기법 중 하나로 평가된다.⁷⁾ 이 분석 방법은 전통적인 양적 내용분석과 달리, 단순 빈도 측정을 넘어 데이터에 내재한 의미 구조와 해석적 패턴을 탐구하며, 귀납적·연역적 또는 혼합적 접근 모두를 허용한다.⁸⁾ Mayring(2014)은 질적 내용분석을 “자료의 체계적, 규칙적, 단계적 분석을 통해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특히 연구 질문에 따라 범주 체계를 사전에 정의하거나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⁹⁾ Schreier(2012)는 분석 절차를 크게 (1) 분석 유닛 결정, (2) 코딩 프레임 개발, (3) 자료 코딩, (4) 결과 해석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분석 유닛은 단어, 문장, 단락, 또는 시각적 요소 등 자료 특성에 맞게 설정되며, 코딩 프레임은 범주 정의와 포함·배제 기준을 포함하여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질적 내용분석의 절차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준비 단계에서 분석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비연관 자료를 제외한다. 둘째, 코딩 프레임 개발 단계에서 연구 질문과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범주를 정의하며, 예비 코딩 과정을 통해 범주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셋째, 본 코

4) 크레스웰,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학지사, 2015, p. 110.

5) 노먼 덴진, 이본 링컨, 최옥, 김종백, 김민정 외 공역, 『질적연구 핸드북』, SAGE 아카데미 프레스, 2014, p. 534.

6) 캐시 차마즈,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근거이론의 구성』, 학지사, 2019, p. 207.

7)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3rd ed.), Sage, 2013. p. 59

8) Schreier, M.,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Practice, Sage, 2012. p. 63

9) Mayring, P.,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oretical Foundation, Basic Procedures and Software Solutions, Beltz, 2014. p. 85

딩 단계에서 자료를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 시 범주 정의를 수정·보완한다. 넷째, 결과 해석 단계에서는 범주의 빈도, 분포, 상관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연구 질문과 연결하여 해석적 결론을 도출한다. 디자인 연구에서는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보고서, 정책 문서, 사용자 인터뷰, 시각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디자인 방법론(예: 근거이론, 디자인씽킹)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변용·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디자인 교육 과정에서 산출된 포트폴리오와 반성문을 분석하여 학습 성과를 도출하는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적용은 방법론적 표준화와 실천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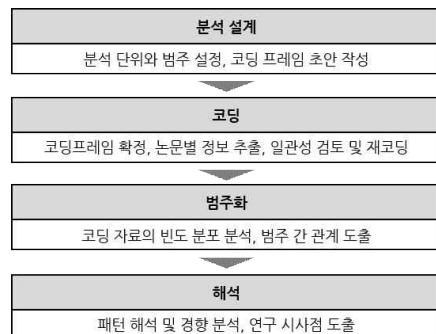
3-1. 분석 대상 선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수행된 근거이론 기반 연구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디자인’과 ‘근거이론’을 검색어로 설정하고,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1차 검색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50편의 논문이 추출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연구재단(KRF)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선별하여 35편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후 학문 분야를 ‘예술·체육’으로 한정하여 재분류한 결과, 21편의 논문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원문이 제공되지 않거나 학술 논문이 아닌 연구보고서 형태의 자료를 제외했고, 제목이나 본문에 근거이론을 명시한 논문만을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17편의 논문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3-2. 자료 분석 절차

질적 내용분석은 텍스트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해석적 절차로, 개별 연구의 맥락과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을 한국 디자인 분야에서 수행된 근거이론 연구의 주제, 자료수집 방법, 근거이론 절차 유형, 산출물 형태, 연구방법 혼합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를 각 논문의 전체 본문으로 하되, 특히 연구 방법(Method)

과 결과(Result)·논의(Discussion)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주제, 자료수집 방법, 근거이론 절차 유형(Glaser & Strauss식, Strauss & Corbin식, Charmaz식 등), 산출물 형태(개념모형, 프로세스 모델, 범주 체계 등), 연구방법 유형(순수 근거이론 vs. 혼합방법)의 다섯 가지 범주를 포함하는 코딩 프레임워크를 초안으로 작성하였다. 둘째, 코딩 단계에서는 확정된 코딩 프레임워크에 따라 각 논문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범주에 할당하였다. 범주의 정의와 포함배제 기준, 예시문을 사전에 마련하여 코딩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 코더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코딩 결과의 내부적 일관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코딩을 실시하였다. 셋째, 범주화 단계에서는 코딩된 자료를 빈도, 분포, 시기별 변화 등의 기준으로 묶어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주제와 자료수집 방법, 근거이론 절차 유형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시기별 경향을 확인하였다. 넷째, 해석 단계에서는 범주화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시기에 나타난 절차 유형의 변화, 혼합 방법 사용 비율의 높고 낮음, 특정 주제와 자료수집 방법 간의 연관성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디자인 분야 근거이론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1] 질적 내용분석(QCA) 연구 흐름도

[표 1] 코딩 프레임(범주) 설정

범주	내용
연구 주제	해당 논문이 다루는 디자인 분야의 주제(예: UX디자인, 공공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자료수집	인터뷰, 관찰, 문서분석, 복합형 등
근거이론 절차 유형	Glaser & Strauss(1967), Strauss & Corbin(1990), Charmaz(2006) 등
산출물 형태	개념모형, 프로세스 모델, 범주체계, 이론적 틀 등
연구방법 혼합 여부	순수 근거이론 또는 다른 방법과의 혼합

[표 2] QCA 코딩 결과 요약

구분	근거이론 유형	개방 코딩	축소 코딩	선택 코딩	이론적 표집	이론적 포화	지속적 비교 분석	메모작성	자료원	혼합 연구 방법 활용	산출물
1	Mixed	○	○	○	×	○	×	×	인터뷰, 관찰	설문조사 (Survey)	가이드라인, 다이어그램
2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통계, 분석	다이어그램
3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	가이드라인, 다이어그램
4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관찰, 다이어리	설문조사 (Survey)	가이드라인, 다이어그램
5	Glaser & Straus	○	○	×	×	○	×	×	인터뷰, 관찰, 문서	설문조사 (Survey)	가이드라인, 다이어그램
6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FGI	설문조사 (Survey)	다이어그램
7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관찰, 문서	통계, 분석	다이어그램
8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관찰	설문조사 (Survey)	다이어그램
9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FGI, 다이어리, 정책문서	설문조사 (Survey)	다이어그램
10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관찰, 문서	설문조사 (Survey)	다이어그램
11	Unclear	○	○	○	○	×	○	○	인터뷰, 관찰	설문조사 (Survey)	프로세스 모형(Process Model), 가이드라인, 다이어그램
12	Unclear	×	×	×	×	×	×	○	비명시	×	불명확
13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관찰, 문서	설문조사 (Survey), 통계, 분석	불명확
14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문서	통계, 분석	다이어그램
15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FGI	설문조사 (Survey)	개념 모형(Conceptual Framework)
16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	다이어그램
17	Strauss, & Cobin	○	○	○	×	×	○	×	인터뷰	설문조사 (Survey)	불명확

4. 연구 결과

4-1. 연구 주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17편의 근거이론 기반 디자인

연구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분야로, 전체의 약 35%(6편)를 차지하였다. 이는 근거이론이 참

여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이론적 틀로 확장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공공디자인 및 지역사회 관련 연구가 23.5%(4편)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주민 참여, 지역 맥락 이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같은 공공디자인 특성과 근거이론의 해석적 성격이 잘 맞아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비스디자인 및 프로세스 개선 연구도 17.6%(3편)로 나타났는데, 이들 연구는 서비스 단계와 절차,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또한 디자인 교육 및 훈련, 시각·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도 근거이론이 적용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교육 효과성, 학습 경험의 이해, 제품 사용 맥락 분석 등에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디자인 분야의 근거이론 연구가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현상 탐색에 집중하면서도, 점차 사회적 협력과 제도적 맥락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표 3] 연구 주제 분포

범주	빈도(편수)	비율(%)
사용자 경험 디자인	6	35.3
공공디자인 및 지역사회	4	23.5
서비스디자인/디자인 프로세스	3	17.6
디자인 교육 및 훈련	2	11.8
시각·제품 디자인	2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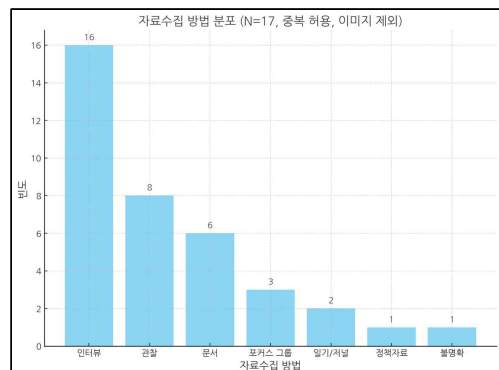
4-2. 자료수집 방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17편의 근거이론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은 인터뷰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 중 대부분이 인터뷰를 주요 방법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는 근거이론이 참여자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개념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관찰이 보조적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었으며, 연구 현장의 맥락을 이해하고 참여자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문서분석을 병행하여 제도적 자료나 텍스트 데이터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또 복수의 방법을 조합한 복합형 접근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단일 자료수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거이론 연구에서 인터뷰 중심의 심층적 경험 수집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연구 맥락에 따라 관찰과 문서분석, 혼합적 접근이 함께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는 디자인 연구가 참여자의 실제 경험과 맥락적 상황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근거이론을 적용하는 연구에서도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의 병행이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자료수집 방법의 중복을 포함하는 전체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자료수집 방법 분포 (중복 허용, n=17)

구분	빈도(편수)	비율(%)
인터뷰	16	94.1
관찰	8	47.1
문서	6	35.3
FGI(포커스그룹면담)	3	17.6
다이어리/저널	2	11.8
정책자료	1	5.9
불명확	1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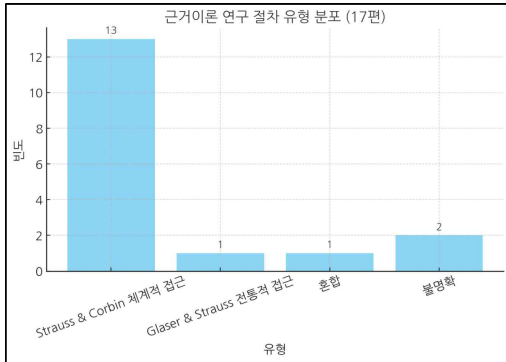
[그림 2] 자료수집 방법 분포 그래프(중복포함, n=17)

4-3. 연구 절차 유형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총 17편의 디자인 분야 근거이론 연구를 분석하여 절차적 활용 양상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Strauss와 Corbin의 체계적 접근 방식이 13편(7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Glaser와 Strauss의 고전적 접근을 따른 연구는 1편(5.9%)에 불과했으며, 절차 혼합형(Mixed approach)으로 분류된 사례도 1편(5.9%)이 확인되었다. 또 연구자들이 근거이론 절차를 명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한 경우가 2편(11.8%) 존재하였다. 근거이론의 또 다른 접근법인 Charmaz의 구성주의 접근을 활용한 예는 전무했다. 이러한 결과는 디자인 분야에서 근거이론이 방법론적으로 활용될 때,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체계적 접근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근거이론 유형 분포

범주	빈도(편수)	비율(%)
Strauss & Corbin 체계적 접근	13	76.5
Glaser & Strauss 고전적 접근	1	5.9
Mixed (절차 혼합)	1	5.9
Unclear (명시 없음/불분명)	2	11.8
합계	17	100



[그림 3] 근거이론 연구 절차 유형 분포

구체적인 절차 활용 빈도에 있어 ‘개방 코딩’은 17 편 중 16편에서 활용되었다. 이는 초기 개념 및 범주 도출 과정이 모든 연구의 기본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축 코딩’은 15편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는 대다수 연구가 범주 간 관계를 탐색하고 중심 현상을 규명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2편은 개념의 단순 배열 수준에서 분석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 코딩’은 14편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절반 이상이 최종적으로 핵심 범주를 설정하고 이론적 통합을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3편은 실천적 제안이나 부분적 설명에 그쳐 이론적 완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방법론적 기법의 활용에서는 다소 편차가 컸다. ‘이론적 포화’는 8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주로 추가 자료수집에도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자료수집의 충분성을 입증했다. ‘이론적 표집’은 단 2편에서만 명시적으로 활용되어, 디자인 연구에서는 표집 전략보다 현상의 접근 가능성과 실용성이 더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메모 작성’은 6편에서 연구자의 해석적 추론을 기록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지속적 비교’는 2편에서만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일부 연구에서만 체계적으로 보고되었고, 다수는 암묵적으로 활용했더라도 기술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디자인 분야에서 근거이론 절차가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보고의 체계성과 방법론적 엄밀성에서 차이를 보임을 드러낸다. 특히 선택 코딩, 이론적 포화, 지속적 비교와 같은 단계적·기술적 요소들은 일부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불분명하게 처리되어, 이론화보다는 실천적 제안에 초점을 둔 경향을 보여준다.

[표 6] 근거이론 절차 활용 분포 (중복 허용, n=17)

절차/ 기법	편수
개방 코딩(Open Coding)	16
축 코딩(Axial Coding)	15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14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	8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2
메모 작성(Memoing)	6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ison)	2

4-4. 산출물 유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산출물 유형을 살펴보면, 두드러진 결과는 다이어그램의 활용으로, 전체 연구 중 14편에서 이를 제시하였다. 이는 근거이론 연구가 개념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가이드라인 제시 유형(5편)이 뒤를 이었다. 가이드라인은 주로 디자인 실천에 적용 가능한 실행 지침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어서 프로세스 모델 제시가 1편 확인되었는데, 프로세스 모델은 특정 현상의 진행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역시 1편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는 연구자가 발견한 핵심 개념을 이론적 구조로 조직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려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분명(unclear)하게 산출물이 제시된 사례가 3편 있었는데, 이는 연구가 실질적 산출물보다는 탐색적 성격을 지니거나, 결과물이 텍스트적 서술에 머물러 구체적인 구조화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자인 분야의 근거이론 연구가 단순히 개념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적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 산출물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이어그램과 가이드라인의 높은 비율은 연구 성과가 학문적 이론화보다는 실천적 도구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의 그래프는 결과를 시각화한 것으로 중복을 허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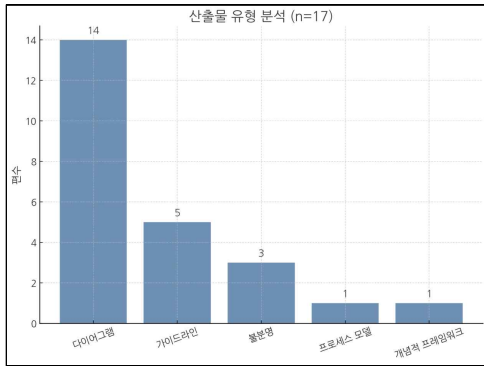


그림 4 산출물 유형 분석

4-5. 연구방법 혼합 여부 분석 결과

근거이론 연구방법이 단일하게 사용되었는지 다른 연구방법과 혼합되었는지에 대한 활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편의 연구 중 14편(82.4%)이 혼합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편(17.6%)만이 순수 질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혼합방법으로 분류된 14 편의 연구는 대부분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양적 조사나 보조적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혼합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질적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연구 주제의 맥락적 이해와 동시에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현장 관찰이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통계적 빈도분석이나 간단한 계량적 검증을 보완하는 형태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복잡한 디자인 현상에 대한 다층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문헌 분석이나 텍스트 분석과 같은 2차 자료 분석을 질적 인터뷰와 결합한 연구도 일부 존재했는데, 이들은 현장 자료와 기존 지식을 상호 검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근거이론에 있어 단일 질적 방법만으로 수행된 연구는 3편에 불과했으며 그중 1편은 전체적으로 연구방법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한 자료였음을 밝힌다. 나머지 2편은 주로 심층 인터뷰나 참여 관찰에 집중하여 개별 현상을 깊이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포는 디자인 연구 분야에서 실천적 함의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질적 중심 혼합방법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과 양적 접근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디자인 연구가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특성상, 단일한 방

법론보다는 다양한 수집과 분석 전략을 결합하는 혼합적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연구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질적 연구 자체의 깊이를 약화시킬 위험도 내포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혼합방법 활용 시 질적·양적 방법 간 균형과 통합 논리가 더욱 정교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4] 연구방법 혼합 여부 분류

절차/ 기법	편수	비율(%)
혼합 방법(Mixed Methods)	14	82.4
단일 질적 방법(Qualitative Only)	3	17.6
총계	17	100.0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수행된 근거이론 기반 연구 17편을 분석하여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근거이론은 주로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 활용되었으며, 서비스디자인·디자인 교육·시각 및 제품디자인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활용 영역은 여전히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자료수집은 인터뷰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관찰·문서분석·포커스 그룹은 제한적이었으며, 다원적 접근은 부족하였다. 절차적으로는 Strauss와 Corbin의 체계적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전적 접근이나 절차 혼합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구성주의적 접근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절차에서는 개방 코딩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축 코딩과 선택 코딩은 일부에 그쳤고, 이론적 표집·메모·지속적 비교는 제한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절차적 엄밀성보다는 실용적 적용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보여준다. 산출물 또한 학문적 이론 정립보다는 다이어그램·가이드라인·프로세스 모델 등 실천적 도구가 주를 이루었다. 더불어 17편 중 14편이 혼합방법을 사용해 질적·양적 방식을 통합하였으며, 순수 질적 접근은 소수에 그쳤다. 이는 디자인 연구자들이 복잡한 현상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방법론적 융합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방법론적 차원에서 디자인 연구자들은 근거이론의 절차를 폭넓게 차용하되 핵심 기법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근거이론이 디자인 맥락에서는 방법론적 완성성보다는 현장 적

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연구 실천 차원에서는 산출물이 실행 지향적 형태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근거이론이 학문적 이론화보다는 실천적 개입과 지침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 학문적 확장 차원에서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디자인 분야 근거이론 연구가 여전히 사회학적 전통의 절차적 관점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해석학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수행된 근거이론 연구의 현황을 최초로 종합 분석했다는 점, 절차와 기법, 산출물까지 세분화하여 근거이론이 어떻게 변형되고 활용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근거이론이 디자인 연구에서 방법론적 엄밀성보다는 실천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밝혀 학문과 실천을 연결하는 전략적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이 17편에 한정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 연구에서 절차적 세부 사항이 동일하게 보고되지 않아 실제 활용 여부와 단순 보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산출물 유형 역시 불명확하게 기술된 경우가 있어 분류 과정에서 연구자의 해석적 개입이 불가피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는 범주의 정의와 포함-배제 기준, 예시문을 사전에 마련하여 코딩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코딩 결과의 내부적 일관성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재코딩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구자는 이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은 피해야 할 오류가 아니라 질적 연구 방법론의 본질적 특징임을 분명히 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국제 연구와 비교하여 한국 디자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조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구성주의적 접근이나 포스트 절차적 전환을 탐색하여 근거이론이 단순한 절차적 도구를 넘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탐구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노먼 덴진, 이본 링컨, 최옥, 김종백, 김민정 외 공역, 『질적연구 핸드북』, SAGE 아카데미 프레스, 2014
2.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2018
3.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016
4. 캐시 차마즈,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근거이론의 구성』, 학지사, 2019
5. Mayring, P.,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oretical Foundation』, Basic Procedures and Software Solutions, Beltz, 2014
6.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3rd ed.), Sage, 2013
7. Schreier, M.,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Practice, Sage, 2012